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7장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끝에 18장이 이어지므로 17장으로 판단했다. 191~200쪽 무렵.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의 결론에서 출발한다. 성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도 하나님의 계시는 보존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창세기의 '계보' 문구를 근거로,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경에 들어갈 자료를 준비하셨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이어 확실한 근거로 넘어간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과 모세의 율법책은 고대 종주권 조약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세운 '언약 문서'였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말씀을 더한 일에서는 정경이 자라는 패턴을 찾는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기록하고 서로 인용한 사실에서는, 구약이 쓰이던 그때 이미 권위 있는 책들의 목록이 생겨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혜문학도 하나님에게서 온 기록된 말씀을 전제한다고 보이며, 구약 전체가 처음부터 자신을 영구한 하나님의 글로 이해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세대(계보)

창세기는 “이것은 ○○의 계보니라”라는 문구로 여러 단락이 나뉜다. 프레임은 이 문구가 창세기의 구조를 짜는 문학 장치라고 본다. 이 패턴은 출애굽기나 다른 모세오경에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창세기 5:1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기록된 자료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와이즈먼(P. J. Wiseman)은 이 계보 문구들이 원래 책의 제목이고, 모세가 그것을 자료로 썼다고 주장했다.

최종 정경에 들어갈 글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결론 내릴 수는 있다. 가설이 틀려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모세는 자기가 겪지 않은 일을 직접 계시나 구전이나 기록 자료 가운데 무엇으론가 받아야 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백성이 영구히, 결국은 글의 형태로 쓰도록 뜻하셨다. 프레임 스스로 이 부분은 “다소 사변적”이라고 인정한다.

1. 창세기는 '계보' 문구로 단락이 나뉜다
2. 창세기 5:1은 '책'이라는 말을 쓴다
3. 와이즈먼: 계보 문구는 원래 자료의 제목
4. 가설이 맞아도 자료의 영감 증명은 아님
5. 어쨌든 하나님은 이야기의 영구 보존을 뜻하셨다

> **창세기 2:4; 5:1; 6:9; 10:1; 11:10; 11:27; 25:12, 19; 36:1, 9; 37:2**
> 창세기 전체를 단락으로 나누는 '계보' 문구의 자리
>
> **창세기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
> **창세기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
> **창세기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 **창세기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 **창세기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
> **창세기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세기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 36:1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6:9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세기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5:1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표현이 기록된 자료였을 가능성을 암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 2. 언약 문서 ① —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저자의 소제목은 '언약 문서' 하나다. 분량이 많아 정리본에서는 셋으로 나눈다.)

프레임은 계보와 달리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중심에 기록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내 산 '총회의 날'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이자 언약의 중재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통은 모세의 입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쓰셨다고 거듭 말한다. 모세가 산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쓰셨고, 판도 글자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며, 모세가 판을 깨뜨린 뒤에도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 출애굽기 34:27-28은 모세에게도 기록하는 역할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누가 무엇을 썼는지 분명하지 않다. 프레임은 이 점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 곧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면 그의

12장에서 다룬다. 이 글들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한다.

1. 시내 산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들음
2. 백성의 요청으로 모세가 선지자·중재자가 됨
3.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이다
4. 하나님은 저자이자 '출판자'이시다
5. 모세가 썼어도 하나님의 저작은 그대로

신명기 9:10; 10:4; 18:16

시내 산 '총회의 날', 백성이 직접 듣고 모세의 중재를 구한 날

신명기 9: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10: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신명기 18: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출애굽기 24:12

모세가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돌판을 쓰셨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애굽기 31:18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하나님의 '필적'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16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기셨다는 강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1

깨진 판을 대신할 새 판에도 하나님이 직접 쓰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27-28

모세에게 기록을 명하시면서도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 인간의 역할과 신적 저작이 함께 나옴

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명기 4:13; 5:22; 9:10-11; 10:2-4

신명기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판'이라는 같은 표현을 반복(각주)

신명기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5: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 **신명기 9:10-11** [10]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사십 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 **신명기 10:2-4** [2]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출판자이시기도 하다.”

📜 2. 언약 문서 ② — 종주권 조약과 닮은 아홉 가지

클라인(Meredith G. Kline)은 『성경 권위의 구조』(1972)에서 고대 관습을 지적한다. 히타이트 같은 고대 근동에서 큰 왕(종주)이 작은 나라의 왕(봉신)과 조약을 맺고 그 조건을 문서에 새겨 두었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십계명과 신명기가 이런 조약과 같은 문학 양식을 지닌다고 보았다. 프레임은 자세한 비교를 24장으로 미루고, 지금 붙들 요점 하나를 내세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기록된 글로 짜인다는 것이다.

그는 닮은 점 아홉 가지를 든다.

- 저자: 하나님은 십계명 서두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저자로 밝히고, 문서 전체에서 1인칭으로 말씀하신다.
- 일방성: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협상은 없다.
- 문서 = 언약: 문서의 말씀이 곧 '언약'이다.

- 영구성: 그렇게 성소에 두어 문서가 영구히 보존되었다. 프레임은 주후 70년 성전 파괴 때까지 보관되었다고 쓴다.
- 증언: 이 문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현대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라 불러 왔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이 통념을 뒤집는다.
- 최고법: 그러므로 문서는 이스라엘의 최고법, 곧 헌법이다.
- 공개 낭독: 칠 년마다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서 읽어야 했다.
- 생명: 이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1. 저자가 1인칭으로 말하고, 조건은 일방적이다
2. 문서가 곧 언약이며, 성소에 둔 거룩한 글이다
3. 성소에 보관해 영구성이 지켜졌다
4.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증언이다
5. 최고법(헌법)이며 정기적으로 낭독되었다
6. 말씀은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 **출애굽기 34:28**
> 판에 쓴 것이 '언약의 말씀'이라 불림
>
>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 **신명기 4:13**
> 언약이 곧 두 돌판에 쓴 십계명이라고 동일시
>
>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 **신명기 9:9, 11, 15**
>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 부름

신명기 9:9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 9:11 사십 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신명기 9:1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신명기 29:9, 21; 33:9

이어서 계시된 율법도 '언약의 말씀'임

신명기 29:9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21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신명기 33:9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신명기 31:26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둠. 거룩함과 영구성의 근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디모데후서 3:15

바울이 구약을 '성경', 곧 거룩한 글로 부름. 거룩한 텍스트 개념의 연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명기 31:26-28

율법책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발하는 '증거'.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근거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신명기 32:46-47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는 선언

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언약 문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거짓 관념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다."

📜 2. 언약 문서 ③ — 모세의 율법책과 여호수아의 첨가

십계명 문서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록은 아니다. 모세는 말년에 '이 율법'을 기록했는데, 아마 신명기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그것을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공개 낭독을 명했다. '모세의 노래'(신명기 32장)도 하나님의 증거로 보존하고 가르치게 했다.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율법을 밤낮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신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뒤 큰 돌을 증거로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명령에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함께 성소에 증거로 놓였다. 여기서 정경에 책이 더해지는 하나의 '패턴'이 세워진다.

1. 모세는 말년에 '이 율법'을 써서 맡겼다
2. 모세의 노래도 증거로 보존·교육했다
3. 여호수아는 기록된 율법을 따라야 했다
4.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말씀을 더했다
5. 가감 금지와 충돌? 답은 언약 안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9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맡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명기 31:11-13

율법을 온 백성 앞에서 공개 낭독하라는 명령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31:24-29

율법책 완성과 언약궤 곁 보관, 반역에 대한 증거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 너희 지파 모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신명기 31:19-22;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증거'로 기록·교육

신명기 31:19-22 [19]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신명기 32장 [1]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3]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5]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

여호수아 1:7-8

새 지도자도 기록된 율법책을 묵상하고 따라야 함

[7]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24:25-28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증거로 세움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 24:26

“하나님의 율법책”에 말씀을 더한 정경 첨가의 사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신명기 4:2; 12:32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명령. 여호수아의 첨가가 오만해 보일 수 있는 이유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 3. 기록된 예언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고, 그의 출생은 앗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곧 무너뜨릴 것을 알리는 표징이었다. 기록된 서판은 예언을 보존한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이사야가 참 선지자임이 확인된다. 이사야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증언하려고 예언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게 하신다. 지금 세대가 듣지 않아도 뒷세대가 경고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지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다시 쓰게 하시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까지 더하신다. 구약 안에서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글을 인용하고, 여러 저자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프레임은 이 사실에서, 구약이 쓰이던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권위로 인용할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이 자라고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다윗도 선지자로 불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윗의 시편을 메시아를 미리 내다본 글로 인용했다.

1. 선지자들도 받은 말씀을 문서로 남겼다
2. 기록은 성취 때 참 선지자를 확인해 준다
3. 기록은 불신앙을 후대에 증언한다
4. 불태워도 하나님은 다시, 더 쓰게 하셨다
5. 구약 시대에 이미 권위 있는 책 목록이 자랐다

> **이사야 8:1-2**
> 서판에 예언을 기록하고 증인을 세움. 보존과 성취 확인
>
>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2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 **이사야 30:8-11**
> 불신앙에 대한 증거로 "후세에 영원히" 기록
>
> 8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 9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사야 34:16-17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으라. 기록된 예언의 권위

[16]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예레미야 25:13; 30:2

예언을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

예레미야 25:13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30: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51:60-61

바벨론에 내릴 재앙을 책에 기록해 읽게 함(원문 '50:60-61'은 오기로 보임)

[60]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다니엘 9:1-2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깨달음

[1]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닫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사도행전 2:30

다윗이 시편 16편을 근거로 선지자로 불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마태복음 22:42-45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레미야 36:32

불탄 두루마리를 다시 쓰고 말씀을 더함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미가 3:12 · 예레미야 26:17-18

후대 본문이 앞선 예언을 인용(원문 '미 3:12-13; 렘 26:17'을 바로잡음)

미가 3: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26:17-18 17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두 선지서에 같은 예언이 나옴

미가 4:1-5 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이사야 2:2-4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14 · 이사야 11:9

앞선 기록의 표현을 다시 씀

하박국 2: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다니엘 9:9-15

다니엘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성취를 고백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

시편 19:7; 94:12; 119:1; 시편 119편

시인들이 기록된 율법을 알고 기림

시편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94:12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119: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시편 119장 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 주께서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 4. 지혜

지혜문학(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과는 갈래가 조금 다르다. 그래도 프레임은 지혜문학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기록된 계시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잠언 1~4장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삶의 길잡이로 삼으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4장과 8~9장이 말하는 지혜의 유익은 시편 119편이 말하는 말씀·법도·증거의 유익과 본질적으로 같다. 잠언 30:5-6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묶고, 거기에 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혜는 입말 가르침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처럼 결국 글로 기록되었다. 이스라엘은 지혜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중요하다. 전도서는 지혜자들의 말이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말한다.

1. 지혜문학도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를 전제
2.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3.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다
4. 지혜의 유익 = 시편 119편 말씀의 유익
5. 지혜자들의 말도 '한 목자'가 주셨다

잠언 2:6-8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

[6]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시편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4장; 8~9장 · 시편 119편

지혜의 유익이 말씀의 유익과 같음을 보이는 비교

시편 119장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잠언 30:5-6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니 더하지 말라. 지혜와 말씀의 연결

[5]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전도서 12:11

지혜자의 말이 “한 목자가 주신 바”. 지혜의 신적 기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또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 책들의 목록. '잣대'라는 뜻의 말에서 왔다.

영감(신적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쓴 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언약
하나님이 주도하여 백성과 맺으시는 약속과 의무의 관계.

중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잇는 사람. 이 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종주권 조약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 왕(종주)이 속국 왕(봉신)과 맺은 조약. 조건을 문서로 새겨 성소에 두었다. 히타이트 조약은 기원전 2천년기 후반 무렵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약궤
성막과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둔 상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 곁에 율법책을 두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

구두 전승
글로 적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와 가르침.

글의 실제 '말하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 프레임의 '인격적 말씀' 관점, 곧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인격적 소통이라는 생각과 이어진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구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전해야 할 영구한 글로 이해했다.
- 시내 산 돌판과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이 친히 저자가 되신 언약 문서다. 종주권 조약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세우는 '헌법'이자 하나님의 증언이다.
- 여호수아와 선지자들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더하고 서로 인용하면서, 구약이 쓰이던 그때 이미 권위 있는 책들의 목록이 자랐다.
- 지혜문학까지 포함해, 구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생명으로 여겼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